

<서평>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샌즈 바딜로스(Angel Sáenz-Badillos)

엘올드(J. F. Elwolde) 영어판 역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6, 371p.

박미섭*

고대 복서 셈어의 가나안 방언에 속하는 히브리어는 기독교와 유대교 경전인 구약 성경의 언어이자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공용어로, 3천 년 이상의 유대 민족 역사의 굴곡과 함께 변천해 왔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함락되고 이스라엘 땅과 주변 지역에 그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의 영향이 더욱 커지면서, 주후 3세기 무렵부터 히브리어가 더는 유대인들의 구어로 사용되지 않았다. 중세에는 세계 각처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구어로 사용했고, 히브리어는 그들의 상업 활동, 회당 예배나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글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때때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구어의 특징들이 히브리어 속에 반영되었다. 18-19세기 유대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성서 히브리어와 랍비 시대에 히브리어를 사용한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들이 등장했고, 히브리어와 독일어가 혼합된 이디쉬어 문헌들도 소개되었다.

19세기 말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러시아 제국 시대에 빌나(Vilna, 현재 리투아니아의 수도

* 히브리대학교 박사, 히브리어학

Vilnius)에서 태어나 1881년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민 온 언어학자 엘리 에체르 벤-예후다(Eliezer Ben-Yehuda, 1858-1922년)를 선두로 한 지식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영국 위임 통치 시기인 1922년에 현대 히브리어가 영어, 아랍어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용어로 선포되었고, 마침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더불어 국가 공식 언어로 부활했다. 이와 같이 한 지역에서 자연스러운 언어적 발달 과정을 거치지 못한 히브리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언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는 1988년 스페인에서 대학 교재로 출판된 샌즈 바딜로스(Angel Sáenz-Badillos) 교수의 스페인어 원서 *Historia de la lengua hebrea*를 셰필드(Sheffield) 대학교의 엘울드(J. F. Elwolde) 박사가 영어로 번역하여 1996년에 출판한 히브리어 역사서이다. 모라그(S. Morag)가 서론에서 밝히듯이 이 책은 현존하는 가장 포괄적인 히브리어 발달사로,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학자들의 몇 안 되는 저서들은 포함된 시대 범위 또는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 하다스 레벨(M. Hadas-Lebel)의 *Histoire de la langue hébraïque*(1981)는 네 번째 개정판이 1986년에 출판되었는데 미쉬나 시대까지만 다룬다.

쿠처(E. Y. Kutscher)의 사후 출판물인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1982)는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 있다. 히브리어에서 영어와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라빈(C. Rabin)의 *A short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1973)는 분량이 86쪽 밖에 되지 않는다.

샌즈-바딜로스는 약 7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참고문헌을 통해 그동안 진행된 수많은 히브리어 연구와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며, 히브리어의 기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언어의 다채로운 변천 과정을 유대 민족 역사의 흐름을 따라 총 8장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한다.

1장 셈어 배경 속의 히브리어,

- 2장 북서 셈어 히브리어,
- 3장 포로기 이전의 히브리어,
- 4장 다양한 전통에 나타나는 성서 히브리어,
- 5장 2차 성전 시대 히브리어,
- 6장 랍비 시대 히브리어,
- 7장 중세 히브리어,
- 8장 현대 히브리어.

1장, ‘셈어 배경 속의 히브리어’에서 저자는 히브리어가 속한 고대 근동 셈어를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중세에 시작되어 19세기에 절정을 이룬 비교 셈어 연구의 역사를 소개한 뒤, 셈어 방언들의 분열 과정과 지역별 분류법에 대한 학자들의 제안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방언들의 특징들을 설명한다. 또한 ‘공통 셈어’(Common Semitic) 또는 ‘원시 셈어’(Proto-Semitic)라는 관례적 표현 아래 셈어 방언들이 초기에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통 특징들을 문자 체계, 음운 조직 및 형태론 중심으로 관찰하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함-셈 또는 아프리카-아시아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함-셈 어족과 인도-유럽 어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2장, ‘북서 셈어 히브리어’에서는 근세기에 들어 고고학 발굴로 우리에게 알려진 고대 비문 자료들과 그 안에 나타나는 언어적 공통 특징들(등어선, isoglosses)에 근거하여 아모리어, 우가릿어, 엘-아마르나 서신의 언어, 아람어 및 가나안 방언들(페니키아어, 암몬어, 에돔어, 모압어, 히브리어)을 포함하는 북서 셈어의 여러 방언들의 세부 특징들과 전반적인 발달 과정을 설명한다.

3장부터 8장까지 저자는 3천 년 이상 지속된 히브리어의 발달사를 네 개의 다른 언어 자료에 따라 네 개의 시대, 곧 성서 히브리어(Biblical Hebrew), 랍비 시대 히브리어(Rabbinic Hebrew), 중세 히브리어(Mediaeval Hebrew), 현대 또는 이스라엘 히브리어(Modern/Israel

Hebrew)로 구분하여 통시적으로 묘사한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히브리어 문헌과 비문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각 시대별 히브리어의 음성론, 형태론, 문장론 및 어휘 영역을 관련된 예들을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론 영역에서 드러나는 역사적 통일성을 인정하되 각 시대에 나타나는 언어적 차이점들을 세밀히 검토한다.

3장 ‘포로기 이전의 히브리어’에서 저자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히브리어의 기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뒤, 히브리어의 초기 형태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대(archaic) 성서 운문의 언어 특징을 묘사한다. 관련 성경 본문으로 모세의 노래(출 15장), 드보라의 노래(삿 5장), 야곱의 축복(창 49장), 모세의 축복(신 33장), 발람의 신탁(민 23-24장), 모세의 시(신 32장), 시편 68편 등이 언급된다. 또한 고대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로기 이전의 비문들(inscriptions), 곧 게셀 달력파와 실로암 터널 비문, 그리고 허술, 사마리아, 라기스와 아랏 등지에서 발견된 여러 비문들을 바탕으로 후대 편집자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이 시대 히브리어의 특징을 설명한다.

곧이어 저자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산문을 기록한 고전 성서 히브리어(Classical Biblical Hebrew)에 나타나는 언어 특징과 그 시대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변화들, 예를 들어 파열음(plosive)으로 발음되던 브가드크파트(bgdkpt) 여섯 자음이 마찰음(frictive)으로도 발음되기 시작하는 것과 한 단어에 두 자음이 연속적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자음 사이에 모음을 첨가하는 ‘췌골화’(segolate) 현상 등을 살펴본다.

4장, ‘다양한 전통에 나타나는 성서 히브리어’는 고전 히브리어의 보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경 본문의 전승 과정을 다룬다. 주후 6-7세기에 자음 본문의 히브리어 성경에 히브리어 모음 체계와 악센트 체계를 도입하여 발전시킨 마소라 학파(Masoretes)가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 매우 신중했음에도, 본문이 정경화 된 시기부터

마소라 학파가 모음 부호를 첨가한 시기까지는 긴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성경 외 자료들 특히 주전 3세기-주후 4세기에 기록된 많은 헬라이어와 라틴어 필사본의 음역들(transcriptions)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이름과 표현들을 통해 마소라 이전 시대의 히브리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칠십인역과 아퀼라(Aquila), 심마쿠스(Symmachus), 테오도시온(Theodotion)을 포함하는 헬라이어 ‘삼대 역본’(the Three), 오리겐의 세쿰다(Secunda)와 제롬의 라틴어 음역들을 분석한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며 음역들 속에 반영된 히브리어를 묘사하는 한편, 헬라이어와 라틴어의 음운론이 히브리어 음운론과 매우 다르고 음역이 기록된 시기나 장소도 서로 다르므로 음역의 증언들을 평가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마도 마소라 이전 시대에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에 다양한 히브리어 전통이 공존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저자는 이 장에서 중세 유대 문헌들과 성경 사본들에 반영된 다양한 마소라 전통들 곧 팔레스타인, 바벨론, 티베리아 전통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와 특징을 소개하고 이 전통들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상호 연관성을 살펴봄, 저마다 독특한 모음 체계를 통해 성서 히브리어를 어떻게 전수하였는지 관찰한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인쇄본(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에 사용된 레닌그라드 사본(Codex Leningradensis B 19a) 속의 티베리아 전통의 특징과 알레포 사본(Aleppo Codex)을 비롯한 관련 성경 사본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이 전통을 확립한 벤-아쉬르(Ben-Asher) 마소라 가문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주목할 만하다.

5장, ‘2차 성전 시대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며 많은 변화를 보인 포로기 이후의 후기 성서 히브리어(Late Biblical Hebrew)를 검토한다. 저자는 이 시기에 아람어 정방형 서체가 고대 히브리어(palaeo-Hebrew) 서체를 대신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 문헌들 중 여러 작품에 뚜렷이 나타나는 아람어의 흔적을

추적한다. 또한 이 문헌들 중에 전기 성서 히브리어를 따르는 것들과 랍비 시대 히브리어 형태가 나타나는 것들을 구분하고, 역시 포로기 이후에 등장한 사해 사본, 집회서, 기도문, 사마리아 히브리어, 랍비 시대 히브리어 등과 비교하면서 후기 성경 문헌 각 책의 서로 다른 언어적 성격을 규명한다.

특히 저자는 주전 2세기-주후 2세기에 기록된 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해 사본과 쿤란 공동체에 주목하며 그 당시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특히 사해 사본 언어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이스라엘 학자 쿠처(E. Y. Kutscher)의 이사야서 두루마리(1QIsa^a) 히브리어 연구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히브리어 발달 과정에서 성서 히브리어 시대와 랍비 시대 히브리어 시대 사이에 연결고리를 제공한 이 언어의 독특한 성격을 관찰한다. 이와 더불어 주전 2세기 후반 무렵에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사마리아 공동체(약 500여 명의 사마리아 후손들이 지금 까지 이스라엘 세겜과 텔아비브 부근의 홀론 지역에 살고 있다)의 히브리어 자료와 언어적 특징의 소개는 이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존재 한 다양한 언어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6장, ‘랍비 시대 히브리어’는 이 시대 히브리어에 관한 중세 유대인 학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부터 후대 편집자들이 성서 히브리어에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수정을 가한 랍비 시대 문헌의 인쇄본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19-20세기 초의 초기 비평적인 연구에 이어, 20세기 초에 우수한 미쉬나(Mishnah) 필사본들을 비롯한 랍비 시대 문헌의 중세 필사본들의 발견으로 박차가 가해진 새로운 접근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 언어에 대한 학자들의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소개한다.

저자는 오늘날 학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랍비 시대 히브리어를 두 가지 시대 곧 히브리어가 여전히 구어로 사용된 타나임(Tannaim, 주후 약 70-200년 사이의 랍비들) 시대와 아람어가 구어로 대체되고 히브리어는 문헌 언어로 남은 아모라임(Amoraim, 타나임의 가르침을

해석한 주후 200-500년 사이의 랍비들) 시대로 구분하고, 이 언어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바벨론 포로기 이후와 중간사 및 예수님 시대를 포함하는 신약 성경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들에 관찰한다. 또한 랍비 시대 히브리어의 철자법,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과 어휘를 성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뿐 아니라 헬리어와 라틴어 등과도 비교 검토하며,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독립된 방언으로서의 성격을 상세히 설명한다.

7장, ‘중세 히브리어’는 대략 6-7세기부터 팔레스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들 사이에 주로 문헌 언어와 회당 언어로 사용된 히브리어의 역사·지리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 시대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다양한 유대 문헌들의 언어를 묘사한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구어로 사용된 아랍어와 유럽 언어들에 중세 히브리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중세 히브리어를 그것의 출처인 성서 히브리어 및 랍비 시대 히브리어와 비교 검토하며, 히브리어 발달사에서 차지하는 이 언어의 위치에 대한 중세 및 근현대 학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다.

특히 히브리어 형태들을 자유롭게 변형시켜 회당 예배 의식을 위한 종교시, 곧 피유티(piyyut)를 지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인들인 파이타님(payṭanim)과 10세기 초 활발한 히브리어 작품 활동을 통해 히브리어의 부활을 예고한 사아디아 가온(Saadia Gaon, 9세기 말 이집트에서 태어나 10세기 전반기에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한 랍비, 유대 철학자, 히브리어 학자)의 언어를 분석하고, 9-10세기부터 히브리어 문학이 번성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지의 유대인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히브리어의 특징을 설명한다.

8장, ‘현대 히브리어’에서 저자는 16세기 무렵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현대 히브리어의 역동적인 부활 과정을 다룬다. 현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초기 작품들을 소개하고, 18-19세기 유럽 유대인들의 ‘하스칼라’(Haskalah, 유대 계몽주의 운동)가 히브리어의 부활에 미친 중요한 역할과 19세기 말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여 히브리어의 부활을 위

해 고투한 엘리에제르 벤-에후다와 동시대 인물들의 활동을 그린다.

이어서 새로운 국가로 이민 온 유대인들의 출신 지역에 따른 다양한 발음 전통이 현대 히브리어 형성 과정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관찰하는데, 크게 세 가지 전통 곧 예멘 전통, 스파르디(Sephardi,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을 포함하는 남부 및 서부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유대인 공동체) 전통, 아쉬케나지(Ashkenazi, 독일을 비롯한 동부 및 중부 유럽의 유대인 공동체) 전통으로 구분하여 각 전통의 발음 특징을 묘사하고, 이 전통들이 현대 히브리어 발음에 남긴 흔적들을 살펴본다. 또한 현대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국가의 공용어로 선포된 뒤 일어난 급속한 발달 과정과 여러 학자들의 연구 및 논쟁을 소개하고, 현대 히브리어의 기초가 된 히브리어의 고대층들(성서 히브리어와 랍비 시대 히브리어)뿐 아니라 현대 히브리어에 영향을 준 외래어들과 비교하면서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히브리어의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 특징을 묘사한다.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는 단순히 문법적인 설명만을 나열해 놓은 문법서와 달리, 히브리어의 발달 과정을 유대 민족의 역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특히 바벨론 포로기, 디아스포라, 약 2천 년만의 국가 재건을 포함하는 유대 민족의 독특한 역사가 이 언어에 남긴 흔적들을 묘사하고, 고대 셈어 방언들뿐 아니라 헬라어, 라틴어, 아랍어 및 여러 현대 언어들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어 발달사에 영향을 준 언어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어가 고립된 언어가 아닌 주변 언어들과 많고 적은 접촉을 하며 변천한 것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를 위해 구약 성경을 비롯한 풍부한 히브리어 문학 유산뿐 아니라 중세부터 현대까지 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광범위한 히브리어 연구를 종합적이면서도 비평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히브리어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과서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책에 설명된 시대별 히브리어의 배경과 특징들은 종종 셈어 전반과 히브리어에 대한 깊은 지식을 전제로 할 만큼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대 문헌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또한 현대 히브리어 부분에서 히브리어의 부활 과정은 상세히 묘사되나, 저자가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어적 특징과 그 예들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아쉬운 점들에도 이 책은 절반 이상의 분량이 성서 히브리어를 다루고 있어 구약 성경의 언어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히브리어의 기원이나 예수님 시대의 언어 등과 같은 꽤 일상적인 질문들에 대한 학문적인 해답을 제시해 준다. 또한 성경 본문 전승과 관련된 마소라 전통과 성경 사본들의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약 성경 문헌들의 기록 연대를 언어적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 구약 성경과 관련된 여러 수업들을 위해서도 좋은 참고 교재가 될 것이다.

히브리어뿐 아니라 유대 문헌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활용하여 훌륭한 히브리어 발달사 교과서로 모습을 갖추기까지 심혈을 기울인 저자 샌즈 바딜로스 교수의 열정과 노력이 무척 존경스럽다. 필자는 단락이 넘어갈 때마다 넓어지는 히브리어의 세계 앞에서 이 언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실감한다.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어의 끈질긴 생명력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접수일 2010년 4월 6일, 수정일 2010년 4월 8일, 게재 확정일 2010년 4월 13일